

장애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동향: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김보배¹, 박수선^{2*}

¹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²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Research Trends on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o-Bae Kim¹, Su-Sun Park^{2*}

¹Subchief, Cheongju senior welfare center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KCI, RISS, KISS, e-Articl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장애인 1인가구, 독거 장애인, 1인가구 등의 연관 검색어를 조합하였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출판된 2,161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5단계에 걸쳐 장애인 1인가구와 관련 없는 문헌을 배제하였고, 최종 13건의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장애인 1인가구 연구주제로 구분한 결과, 1인가구 관련 실태 및 관련 요인분석, 1인가구 관련 쟁점 및 지원방안, 1인가구 관련 사례연구 3개로 연구주제가 구분되었다. 둘째로 장애인 1인가구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미취업 상태일수록, 가족지원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 장애인 1인가구, 체계적 문헌고찰, 1인가구, 독거 장애인, 연구동향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us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research method. To this end, 2,161 papers published by September 30, 2023 were searched in a total of four databases: KCI, RISS, KISS, and e-Articl, combining related search terms such as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disabled person living alone. In five stages, irrelevant literature to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was excluded, and the final 13 documen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research topic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related factors, issues and support measures relat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ree case studies relat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Second, women, age, income, interpersonal skills, health, unemployment, and family support are lower in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According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n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were presented.

Key Words :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ingle-person households, Disabled person living alone, Research trends

*Corresponding Author : Su-Sun Park(sunybono@seowon.ac.kr)

Received January 15, 2024

Accepted February 20, 2024

Revised February 20, 2024

Published February 28, 2024

1. 서론

최근 국내의 1인가구 급증으로 인한 다수의 지원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장애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른 장애인들이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1인가구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전체가구의 41%인 927만 4256가구를 차지하고 있다[1]. 장애인 1인 가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17.4%였던 장애인 1인가구 비율은 2020년 27.2%로 거의 10년 사이에 약 10%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2] 장애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 중 1인가구 지원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 1인가구에 해당되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국내의 정책은 거의 전무하지만 이에 반해 비장애인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2020년 정부는 1인가구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1인가구의 대표적인 개념을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3] 규정하였다. 정책 목표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을 설정하였다[4]. 각 지역에서도 1인 가구 관련 조례들을 작성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실시한 1인가구 실태조사[5]에서는 경제활동, 복지, 주거, 안전, 건강 및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정책수요 등을 1인가구 생활실태의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고 조사하였으며, 1인가구 밀집지역 주거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3]에서는 주거, 안전, 건강, 경제,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1인가구 현황을 조사하여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확인하였고,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6].

다음으로 1인가구 대상 연구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는 주거영역으로 보이며, 주거 정책[7-10], 주거실태[11-14], 주거 환경 요구도[15-17]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 영역 연구에서는 성별이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1인가

구의 경우 남성 1인가구에 비해 강력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8-21]. 또한 지속적으로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운데, 특히 초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생활할 때 주관적 건강이 더욱 나빠지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23]. 서울시 1인가구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24] 연구 결과에서 보면, 사회적 고립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는 40-50대 1인가구 남성을 새로운 고독사 위험집단으로 주목하고 있다[25].

이렇듯 1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세분화되고 분야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주거, 돌봄, 건강, 소득 영역 등 각 부문에서의 복합적 취약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26]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실천 서비스 및 정책적 접근은 현재의 1인가구 정책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장애인 1인가구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는[5] 장애인이 소외된 현재의 1인가구 연구 및 정책적 접근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장애인 1인가구의 실태진단 부족,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미흡, 주거·경제 영역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 등으로 장애인 1인가구의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취약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실태에서 나타난 큰 어려움은 빈곤율 상승으로,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65.8%가 빈곤에 해당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여성 노인 1인가구 장애인’[27]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비장애 근로 연령대 가구원과의 동거 감소 등과 같은 장애인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빈곤율을 증가시킨 원인[28]임을 알 수 있다. 전국 단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장애인 1인가구는 30대 이상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 40대 7.1%, 50대 20.5%, 60대 이상 67.0%이며, 생애주기에서 50대 이상 중장년 이상 연령대가 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중장년층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주거부담이 크고 만성질환이나 우울 비율이 높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취약하여 생활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다수[23]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 1인가구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1인가구 사업 역시 중증 장애인 대상 안전관리 수준에서만 제공되고 있는[2] 실태

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장애인 1인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나 건강 분야 등에서 취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관심은 시작되었으나,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국내 정책 지원은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장애인과 1인가구라는 두가지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장애유형의 특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세대별, 성별로 구분되는 1인가구 지원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애인 1인가구에 적합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1인가구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선행되어 실제적인 생활실태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며, 비장애인 1인가구와는 다른 장애인 1인가구 정책의 기초가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비장애인에게 1인가구 생활은 단순 타인에게 도움받지 않는 자립을 통해 완성되는데, 장애인에게 1인가구 생활은 안전, 건강, 심리, 정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의 자립을 포함하고 있기에[35] 차이가 있다. 장애인 1인가구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살아 간다해도 근거리에서 가족, 활동지원사, 동료 등 타인의 도움을 통해 자립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국내 장애인 1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천적 접근과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장애인 1인가구 대상 연구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동향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장애인 1인가구 정책 수립의 기반인 될 관련 쟁점과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문헌의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장애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 관련 요인과 특징, 그리

고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 경향을 알아보고자 국내 문헌들을 중심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설정을 위하여 PICO(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핵심질문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대상자(population)는 장애인 1인가구이며, 결과(outcome)는 장애인 1인가구 지원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논문 발행 시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논문 작성 시기 또한 학계가 장애인 1인가구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웹을 기반으로 국내 데이터베이스에 2023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국내 학술지 모든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Fig. 1 참조). 이를 위해 KCI, KISS, RISS, e-Article 총 4개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문헌 검색은 <장애인>, <1인가구>, <독거가구>, <고립가구>, <장애인 삶>, <독거노인>, <장애노인>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 키워드를 조합하여 제목을 검색한 결과 최초 수집된 문헌은 총 2,161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중복된 문헌을 제거한 후 총 583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이후 회색문헌(학위 논문, 학술대회 발표 문헌, 각종보고서)과 외국어로 작성된 문헌 87편을 제외하고 496편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종 단계에서 전문검토를 통해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헌 486편을 제외하고 총 13편의 문헌들을 확정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 1인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장애인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모형 연구, 1인가구 여부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연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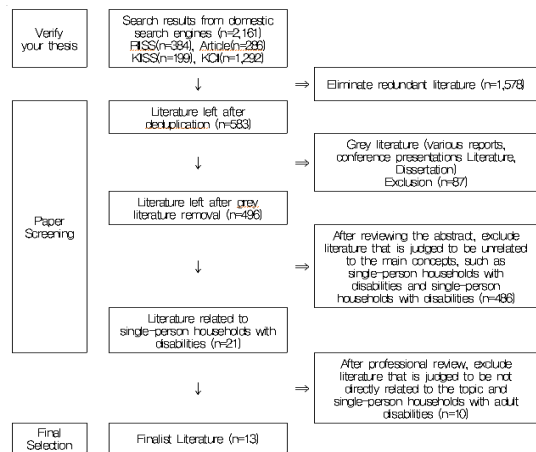


Fig. 1. Selection process of the literature to be analyzed

2.2 문헌의 질 평가 및 신뢰도

본 연구는 논문의 질 평가 도구로 비폴립 위험 평가 도구 QualSyt (캐나다 의료연구재단 AHFMR, 2004)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QualSyt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고찰 평가도구로서 타당성과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24]. QualSyt의 평가항목은 목적과 질문, 연구설계 근거의 적절성, 대상자와 비교그룹 선택의 적절성, 노출 측정결과의 적절성, 표본크기의 적절성, 분석방법 및 정의의 적절성, 변수 기술 적절성, 혼란변수 증재 여부, 결과 지지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항목에 충족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최저 한계점수는 0.55점으로, 기준 점수 미만 문헌들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30-32]. 최종 선정된 문헌 13편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 두 명의 공동연구자(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들은 해당 문헌들 모두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앞으로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인가구 증가와 더불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유용성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장애인 1인가구 서비스 현황과 필요한 서비스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연구의 개괄적 특징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연구를 게재연도, 출판학회지,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최종 선정된 문헌 확인 결과 2009년도부터 장애인 1인가구 주택개조 사례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1인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부터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2017년 국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에 접어들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에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도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자 여러 사업을 진행한 사회적 상황이 1인가구 연구 시작의 기초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에는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19~2023년)’이 수립되면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1인가구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 문헌이 실린 학술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장애인복지학 2편, 한국스트레스학회 1편, 장애와고용 1편, 비판사회정책 1편, 인문사회21 1편, 한국콘텐츠학회 3편, 한국주거환경학회 1편, 서울시연구 1편 사회과학 분야에 총 11편이 실려있었으며, 문화융합저널 1편, 디지털융복합연구 1편 총 2편이 복합학 분야에 서 출판되었다.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장애인 분야의 관심도 많으나 1인가구 지원영역에 질병, 주거, 안전, 정서지원, 경제 및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이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다양한 분야의 학회지에서 관련 연구가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final selected literature

Category / Year			2009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Total
Journal Classification	Society scienc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		1*			11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				
		Disability & Employment							1*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1**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			1*		1*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							
	The Seoul Institute					1**				
Multidisciplinary Scienc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						2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						
Total			1	2	2	1	3		4	13

* Literature utilizing secondary data (panel data) : 9

**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 4

앞으로도 훨씬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을 구분해보니 Table 1에서 *표시로 기록된 것처럼 사례연구, 조사연구 2가지 분야만이 확인 되었다. 조사연구 13편 중 9편이 양적연구이면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며, 4편이 사례연구 방법과 FGI &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한 질적연구였다. 패널데이터로는 1~5차, 8차 장애인고용패널, 제7차 1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9차, 2021년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질적연구 대상으로는 1인가구 노인과 장애인 비교 1편, 시설 퇴소한 탈시설 장애인 대상 1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1편, 혼자산지 2년이상 된 장애인 대상 1편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1인가구는 다가구에 비해 경제, 건강, 주거 등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을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급[33]하고 있으나 장애인 1인가구 대상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양적조사는 현재까지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장애인 1인가구 당사자들의 생활실태를 직접 조사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2 연구 주제별 구분

장애인 1인가구 관련 국내 연구 총 13편을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첫 번째 주제 분류는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실태 및 관련 요인'을 다룬 연구들이 13편 중 8편(62%)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주제 분류는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쟁점 및 지원 방안' 관련 연구가 3편(23%), 세 번째 주제 분류는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사례 연구'가 2편(15%)으로 나타났다.

3.3 장애인 1인가구 개념

관련 연구내용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헌들에서는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개념을 '1인가구 생활을 하는 가족구성원이 없는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Na et al. [34] 연구에서는 '법적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홀로 주거와 생계를 책임지는 등록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Lee et al. [33]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생활이 2년 이상이며, 현재도 1인가구를 유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고령장애인 1인가구에 대해 정의한 연구 Mun et al. [35]에서는 '동거인 없이 생활하는 40세 이상 장애인'으로 표현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장애인 1인가구 내에서의 다양성을 연령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조사로, 향후 장애인 1인가구 연구에서는 1인가구 안에서의 대상자 특성, 장애유형, 지원유형 등에 따른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도록, 주제와 대상이 좀 더 확대되고 각 부문이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4 장애인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

각 문헌들에서 장애인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1차~5차(2016~2020년)의 장애인 1인가구 현황을 종단자료로 연구한 Yi[36]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평균연령이 50대에서 60대로 고령화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52%에서 59.2%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특성으로는 신체적 장애가 가장 많은 59.2%였으며, 감각장애 20.6% 순으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가 경증인 경우보다 2배 많은 66.1%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어있는 장애인은 12.8%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애인 1인가구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특성으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많으며, 경증보다 중증장애인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상태, 건강상태, 노후준비, 일상생활 차별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차이가 있었다. 장애가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응전환 단계를 지나고 나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39]고 설명하고 있는 장애역설이론을 근거로 분석해보면, 장애에 대한 수용과 적응 과정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만이 이용가능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1인가구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장애인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준비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37] 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두 번째,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Kim et al. [38]연구에서는 주택개조 사례, Paek[39]연구에서는 시간, 공간, 관계적 측면에서 장애

인 1인가구의 삶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적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장애인 1인가구 정책은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인가족 장애인보다 취약한 중증, 고령, 빈곤 장애인 1인가구가 혼자 살게 된 이유를 확인하고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모든 주거 정책이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집은 공간으로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건강,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의 의미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공백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언제든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은 관련 연구[40-42] 분석 결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의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문헌들에서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들어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1인가구 특성상 지역주민, 이웃, 가족들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 향상 지원은 최근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근거로 운영 중인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센터에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돕고, 1인가구를 위한 전문 상담, 실태 파악, 정책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 모든 구에서 해당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고령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소모임 등은 확대되고 있으나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런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1인가구의 일상생활 어려움과 건강관리의 열악함,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인 경우가 많으며

로, 이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2, 42]. 해당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 1인가구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네 번째,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43, 44]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며,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우울증상이 심해지고, 인생에 대한 불안, 상실감 등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장애인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체기능 및 잔존기능 유지가 필요하며, 운동이나 금연 등 건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울 예방 등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주관적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번째, 1인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공공취업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고용과 취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34, 40]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을 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 소득이 생기는 것 외에 좀 더 경증장애이며, 만성질환이 없으며, 자력증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긍정적인 장애수용 환경이 확대되어, 소득 발생으로 인한 수급권 탈락, 소득삭감 등 취업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고령의 장애인들도 거주지 근처에서 공공취업서비스 정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 상담과 알선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5 장애인 1인가구 영향요인

다음은 선정된 문헌들에서 장애인 1인가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인구학적 요인,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무학에 가까울수록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고령화된 장애인이 노후

를 준비할 기회가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과 남성보다 여성 독거 노인의 삶이 만족도가 낮다는 [45]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개인 요인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거나, 동거인이 없을 때, 장애수용 정도가 낮을 때, 장애인이 된 후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직업이 없을 때, 취업 경험이 적을 때, 경제수준이 낮다고 느껴질 때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수용 단계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 이후 우울 등의 반응을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 장애를 수용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Factors influenci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Variable		Life Satisfaction
Demographic factors	gender	The more women ↓
	age	The older the age ↓
	level of education	The closer you are to being uneducated ↓
Personal factors	marital status	The more unmarried ↓
	degree of disability	The more severe the disease is ↓
	degree of acceptance of disability	The less disability is accommodated ↓
	disability period	As time passes after diagnosis of disability ↓
	occupation or not	The more unemployed you are ↓
	employment experience	Less employment experience ↓
	economic level	In the case of a basic living beneficiary ↓
family factors	degree of family support for employment	The lower the employment support ↓
	degree of interaction with family	The less interaction you have with your family ↓
	degree of family support	The less family support ↓
social factors	daily life stress	The more stressful it is ↓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worse your health is ↓
	daily life satisfaction	The lower the satisfaction level ↓
	social exclusion	The more social exclusion ↓
	interpersonal skills	The lower your interpersonal skills are ↓

장애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의 취업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평상시 가족과 교류 정도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 대한 가족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적부터 시설 생활로 자립생활을 한지 오래

된 장애인 1인가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1인가구는 탈가족의 형태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우울을 경험하고, 대인관계만족도가 낮아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외에 도움을 받을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도 발생하였다.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서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으며, 1인가구 생활을 좀 더 자신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연구에서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장애 유형에 따른 주거지원이 차별성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이 장애인 1인가구의 가족환경 특징에 적합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1인가구마다 혼자 생활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다르지만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의 지원이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 1인가구 당사자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환경에도 비중을 둔 조사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적고,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배제 상황과 대인관계능력 어려움이 적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수행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사회활동 참여, 여가문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39]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건강상태는 의료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적인 의식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생활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이나 각종 지원 감소를 우려하여 취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1인가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해석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 연구들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연구동향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장애인 1인가구 삶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 1인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정책 및 실천 분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종 선정된 13건의 문헌에 대하여 전문 검토와 더불어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 연구의 주제 구분, 안정적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1인가구 관련된 연구는 총 2개 분야 10개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연구의 시작 연도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진행되었고, 2023년 현재 4건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을 구분해보면 양적연구 9편, 질적연구 4편이었으며, 양적연구 9편 모두 장애인 실태조사 외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진행되었고, 질적연구 방법은 사례연구와 조사연구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일차 분석 변인으로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 관련 실태 및 관련 요인, 1인가구 관련 쟁점 및 지원방안, 1인가구 관련 사례 연구로 연구주제를 구분하였다.

셋째,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주요 개념정의는 ‘법적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홀로 주거와 생계를 책임지는 등록 장애인[33]’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생활이 2년 이상이며, 현재도 1인가구를 유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32]’이라고 하였다.

넷째, 장애인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으로 노후준비 서비스 개발과 보급,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관리,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공공취업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대상 문헌 13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1인가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1인가구 조사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장애인 1인가구를 직접 조사한 양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으며, 2차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패널데이터가 장

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 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장애인 1인가구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구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1인가구의 현황에 적합한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분석결과 현재 국내에서 장애인 1인가구가 가장 증가하는 연령대는 40~60대로 나타나, 생명과 안전에 취약한 고령 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 보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지역사회 관계망 및 안전망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고령 장애인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구축과 연계는 생활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 조건임을 본 연구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이는 1인가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장년과 노인층의 고독사 예방에 중요한 완충작용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25, 47]와 일치하므로 중장년 및 노인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34, 48]이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고령 장애인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및 기업 표준형 사업장 사내 카페, 영양 도시락사업단 운영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공공형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시행될 1인가구 정책에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에 기반한 장애인 1인가구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방안 마련, 지역별 1인가구 조례제정, 1인가구 기본계획 발표, 1인가구를 위한 포털 사이트 개설 등 1인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1인가구 포털’인 ‘서울시 1인가구 플랫폼: 싱글빙글 서울’을 개설하여 1인가구 정보를 성별, 생애주기별, 상황별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포털에서는 장애여부와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장애와 무관하게 1인가구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을 우선 고려한 1인가구 정책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보면, 장애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가구별 특징까지는 충분

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1인가구 정책이 주거, 경제, 안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에서도 장애인 삶의 다양성을 반영한 시도가 필요하다.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안전 영역의 경우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활동지원 수급은 받지 않지만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취업한 여성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건강영역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비대면 건강 및 안전 지원사업’,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장애인 건강검진 확대’, ‘장애인 주치의 사업’ 등 장애인건강법의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경제영역에서는 공공형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 매칭을 통한 일상적 디지털 접근사업과 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별적 접근 중심의 사업인 ‘움집이’, ‘서울스몰스파크’를 통한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전국 지자체 정책 모니터링단에 장애인 1인가구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참여기회 확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23년 서울시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설립되어 1인가구 중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대상 24시간 스마트돌봄체계를 구축하고 1인가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에서도 1인가구지원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1인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그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1인가구 지원 정책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1인가구는 중고령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1인가구, 시각장애인 1인가구, 발달장애인 1인가구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형태가 있다. 이에 장애유형에 따른 1인가구 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기반 구축이 현 시점에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마포구 등 2023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4개 지역의 2개 모델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서비스 선택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며, 이 결과의 의미가 앞으로의 장애인 1인가구 서비스 지원 방향 설정에 포함되길 바란다. 더불어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로 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개별형 주거지원과 공동형 주거지원, 24시간 최중증 돌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별 지원계획

과 시민옹호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 참여와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1인가구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관할 지역 내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자립 희망자 발굴, ‘1인가구 안심마을 사업’, ‘이웃챙김이 사업’과 같이 장애인 1인가구 발굴과 함께 지원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성하고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양질의 논문을 선택하기 위해 관련 연구 보고서나 학위논문 등을 제외하고 학술지 게재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에 학위논문, 각종 보고서가 제외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출판향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유형과 영향 요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참조하여 문헌고찰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1인가구 대상 국내 연구의 동향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연구가 출판된 시점이 최근이며, 1인가구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수의 연구가 진행된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방법으로 풍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세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셋째, 부족한 선행연구 편수로 인하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같이 분석하였기에 변수 간 상관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연구영역, 연구주제 및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장애인 1인가구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분석하고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3). *Administrative Safety Statistics Yearbook*.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2020 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3] K. L. Hwang, S. Y. Par, S. S. Park, S. H. Cho. (2021). *A Study on the Survey of Gyeonggi-do Province*. Gyeonggi Welfare Foundation. DOI : 10.979.115599/4528
- [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20). *Mid-to long-term policy direction and response pla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
- [5] S. Y. Kim. (2022).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and coping strategies*. The Seoul Institute.
- [6] G. h. Noh, H.J. Noh, H. W. Jeong, & H. E. Yoo. (2022). *Research on establishing the Gyeonggi-do single-person household policy basic plan (2023-2027)*. Gyeonggi-do Women and Family Foundation.
- [7] J. H. Cho, J. W. Kim. (2010).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ousing Demand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cused on Seoul. *Korea Real Estate Review*, 16(4), 33-52. UCI : G704-001613.2010.16.4.009
- [8] M. R. Shin & J. Nam. (2011). Forecasting of the Housing Demand for the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6(4), 131-145. UCI : G704-000338.2011.46.4.019
- [9] S. D. Pil, Y. S. Woo. (2012). A Study on Efficiency of Housing Supply Policy Depending on 1-2 Person Household.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2(4), 217-242. UCI : G704-SER000008612.2012.12.4.027
- [10] S. J. Kim. (2020).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Housing Satisfaction by Age Group. *SH Urban Research & Insight*, 10(1), 39-62. DOI : 10.26700/shuri.2020.4.10.1.39
- [11] J. H. Han, C. S. Yoon. (2011). Unit Planning of Single Undergraduate Student's Rental Housing Corresponding to their Life Pattern and Housing Need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4), 93-102. UCI : G704-000516.2011.22.4.008
- [12] J. E. Chae, S. E. Pak, B. S. Byun. (2014). An Analysis of Spatial Concentrated Areas of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Concentrating Factors in Seoul. *Seoul Studies*, 15(2), 1-16. DOI : 10.23129/seouls.15.2.201406.1
- [13] M. H. Lim. (2020). A Study on Gender Difference of Housing Costs: Focusing on Single-Person Household. *KAHPS*, 28(2), 113-129. DOI : 10.24957/hsr.2020.28.2.113
- [14] C. G. Mim. (202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Housing Satisfaction in Young One-person Households - Focused on 2010 and 2019 Korea Housing Survey*.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OI : 10.26700/shuri.2022.12.12.3.1
- [15] S. J. Kang, J. Y. Kim, S. I. Ham, Y. J. Kwon. (2011). A Study on 1-2 Person Household's Lifestyle and Needs of Small Hous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2), 121-129. UCI : G704-000516.2011.22.2.014
- [16] J. Y. Kim. (2013). Housing Consciousness and Needs of Single Woman Household for the Small-sized Rental Housing Development - Focused on the Residents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4), 109-120. DOI : 10.6107/JKHA.2013.24.4.109
- [17] S. Y. Lee, S. C. Eom. (2018). Analysis on the Housing Needs for Young Adults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7(2), 77-85. DOI : 10.14774/JKIID.2018.27.2.077
- [18] J. H. Park, et. al. (2017). *Research on for Strengthening the Efficacy of Criminal Policy for Public Safety (II) : Improving Safety in Single-Person Household Concentration Area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19] Y. D. Song. (2019).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for Woman in the One Person Household by Physical Surveillance Reinforcement. *Disastronomy*, 2(2), 1-15.
- [20] J. W. Jang & J. W. Lee. (2019). urban environment affects to crime heading for 1-person female household. *KEPAS*, 2019(10), 85-86.
- [21] Y. J. Won, T. Y. Cho. (2020). A study on crime prevention complex housing space for single female households : Focusing on public sensibility

- and public space in women's shared hous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5(5), 201-214.
DOI : 10.35216/kisd.2020.15.5.201
- [22] K. E. Kim, H. J. Kim, Y. S. Kim. (2017). Leisure Activity Typ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Aged People Living Alon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2), 184-215.
DOI : 10.15709/hswr.2017.37.2.184
- [23] E. J. Kim, H. Kim, J. Y. Yoon. (2019). Trajectories of Self-rated Health among One-person Households: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30(4), 449-459. DOI : 10.12799/jkachn.2019.30.4.449
- [24] J. J. Hee, Y. J. Kim. (2016). *A study on young single female-headed households in Seoul and policy implication*.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25] *Research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lonely deaths and support measures*. (2016). Seoul Welfare Foundation.
- [26] Y. M. Suk et. al. (2022). *Life Choices and Strateg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Alone*. ISSUE PAPER, The Seoul Institute.
- [27] J. M. Suk. (2019).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verty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UCI : I804:11062-000000110682
- [28] O. U. Kchan, W. J. Lee, D. W. Um. (2022). A Study on the Causes of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Effect of Income Secur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OI : 10.23060/kihasa.a.2022.56
- [29] R. I. Kwon, S. S. Shin, Y. J. Shin. (2017).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Association Between Drinking Behavior and Alcohol Availability. *Korea Social Policy Review, KIHASA*, 37(1), 543-567.
DOI : 10.15709/hswr.2017.37.1.543
- [30] Kmet L M., Lee R C, Cook, L. S. (2004). Standard quality assessment criteria for evaluating primary research papers from a variety of fields: *Alberta Heritage Foundation for Medical Research Edmonton*.
- [31] S. J. Kim, E. H. Jang, S. H. Hong. (2022).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Preparation for Aging of Korean Baby Boom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8(3), 239-270.
UCI : I410-ECN-0102-2023-300-001024376
- [32] S. W. Lim, J. H. Jeon. (2021).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and social support plans. *Seoul Studies*, 22(4), 1-21.
- [33] K. J. Lee, S. J. Lim, S. R. Kim, S. R. shin, & J. S. Jeong. (2021).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Direction of 'Community Care' for Single-Person Household with Disabiliti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7(1), 101-133.
- [34] D. W. Na, J. H. Lee. (2023).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n the Daily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iddle and Old-aged Disabled Living in Single Households. *Disability & Employment*, 33(3), 05-31.
DOI : 10.15707/disem.2023.33.3.01
- [35] Y. M. Mun, J. O. Kim, S. Y. Kim. (2023). Life Choices and Strateg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Alone.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79, 119-154.
UCI : I410-ECN-0102-2023-300-000822341
- [36] E. S. Yi. (2023). Life Satisfaction Trajectory and Predictive Factors of Middle-aged and Elderly Disabled People Living Alon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4(2), 1947-1958. DOI : 10.22143/HSS21.14.2.133
- [37] B. H. Lim, Y. K. Park. (2009). A Case Study on the House Remodeling for the Solitude Elderly and Handicapped People of 24 dwellings in Daejeon City. *Residential Environment :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7(1), 73-86.
- [38] E. J. Kim, H. Kim, J. Y. Yoon(2019). Trajectories of Self-rated Health among One-person Households: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30(4), 449-459. DOI : 10.12799/jkachn.2019.30.4.449
- [39] J. Y. Park(2018). Characters and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The*

-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 (12), 272~280.
DOI : 10.5392/JKCA.2018.18.12.272
- [40] J. Y. Park(2019).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Factors Affecting on the Employmen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387-393.
DOI : 10.14400/JDC.2019.17.7.387
- [41] J. H. Im, S. G. Lee(2023).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3(8), 590-598.
DOI : 10.5392/JKCA.2023.23.08.590
- [42] S. H. Jung, H. Y. Jung, S. K. Lee(2022).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Comparison of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8(2), 231-253.
DOI : 10.33770/JEBD.38.2.10
- [43] J. S. Kwon(2019).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ddle and Old Adult One-Person Household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153-167. DOI : 10.17703/JCCT.2019.5.1.153
- [44] J. N. Lee(2020). The Moderating Role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in the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Focus on Middle and Old-aged Single Households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8(4), 230-236.
DOI : 10.17547/kjsr.2020.28.4.230
- [45] J. Y. Part(2021). Factor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Adults with Brain Lesions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9), 696-703.
DOI : 10.5392./JKCA.2021.21.09.696
- [46] J. H. Hwang et. al & M. E. Kim(2020). *A study on housing support policy for the application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with disabilities*. KIHASA.
- [47] S. S. Park, M. Y Lee(2017).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middle-aged and older single-person household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11*, 139-149.
- [48] J. E. Seok, E. J. Jang(2016).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Resource by Gender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2), 321-349.
DOI : 10.21194/KJGSW.71.2.201606.321

김보배(Bo-Bae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꽃동네대학교 임상사회복지 전공 석사
- 2019년 9월~현재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 재학
- 2005년 5월~2023년 5월 :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무국장

- 2023년 6월~현재 :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재직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bobae--love@hanmail.net

박수선(Su-Sun Park)

[정회원]



- 199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학전공 석사
- 2004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학전공 박사
- 2020년 8월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박사

- 2012년 3월~현재 :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가족복지
- E-Mail : sunybono@seowon.ac.kr